

MC : 경인방송 상쾌한아침 원기범입니다. 10월10일 수요일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의정중계탑 시간인데요? 오늘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재병 시의원과 만나보겠습니다. 부평제2선거구가 지역구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의원 : 네 안녕하십니까?

MC : 반갑습니다. 후반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사실 과거에는 건설교통위원회 서로 들어가려는 상임위인데 요즘 기피하고 있다면 서요? 왜 그럴습니까?

의원 : 네 건설교통위원회가 인기가 높았고, 위원장님 부의장님보다 인기가 많을 정도로 실세였는데요 요즘에는 건설경기가 많이 죽었고 또 관급공사가 전무하다시피 하면서 영향력이 조금 예전만 같지 않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또 개다가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진행이 어려움이 생기면서 욕을 많이 먹는다고 하죠? 그렇게 돼서 약간 인기가 떨어졌습니다.

MC : 의원님은 왜 그리 들어가셨어요?

의원 : 그래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갖고 있는 도시계획에 대한 권한이 인천시가 갖고 있는 권한 중에 가장 큰 권한이면서 또 도시계획 쪽과 도로, 건축 이런 부분에서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실질적인 삶에 영향에 크다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MC : 네 사실 인천시의 미래를 그리는 일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인천시도시계획위원으로도 참여하셨다고 들었어요?

의원 : 네 어떻게 운 좋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MC : 이게 운 가지고 돼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의정활동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의원 : 일단 상임위원회에 충실해야 되고요 제가 지식이 부족하지만 건설교

통 행정속에서 불합리한 재정지출과 무리한 도시계획적인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적을 해야 겠고요 두 번째로는 재개발 재건축 문제 속에서 이것에 대한 뉴타운 정책에 대한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하면서 출구절약을 짜야 겠다 될 곳은 되고 안 될 곳은 빨리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서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그것을 해야겠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MC : 그 부분도 도식계획위원회에서 다루게 되는 건가요?

의원 :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주로 다루게 되고요 상임위에서 통과된 이후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검증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MC : 그렇군요? 사실 인천뿐 얘기가 아니죠? 인천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재개발 재건축 문제인데 인천에서 출구전력을 말씀하셨으니까 제일 중요한건 주민들의 의사 아니겠습니까?

의원 : 주민들의 의사구요 주민들의 의사가 모여지면 그것을 존중하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거기서 매몰비용입니다. 그동안 조합이 써왔던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분쟁적인 요소인데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가가 얼마큼 부담하고 인천시와 조합이 또 얼마큼씩 분배를 하느냐 비율을 정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MC : 그렇죠? 상임위 활동과는 별개로 말씀을 나눠야 될 것 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와 각 구군에서 100억원에 달하는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더라구요 어떤 내용입니까?

의원 : 일단 첫 번째로는 어처구니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부가가치세법 청취자 여러분 연말 되면 연말정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서 영수증을 제출하고 보험 이라던 지 이런 관계를 다 증명을 해서 세무서에 제출을 하는데요? 그것과 똑같이 시군도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군이 갖고 있는 수익시설 이른바 매점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수익시설, 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했을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그것이 원천징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일반인과 똑같이 증명서를 만들어서 세무서에 제출하면 심사를 해서 환급을 해주게

돼있어요 근데 환급을 해주게 돼있는데 2007년부터 그렇게 하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이 신고를 해서 환급받는데 시의 몫이고 시민의 혈세를 돌려받는 비결인데 시군이 그것을 안 했어요?

MC : 여태까지요? 2007년도부터

의원 : 네 신고를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돌려받을 일도 없는 거죠?

MC : 그렇죠? 우리도 연말정산할 때 자료를 제출을 안 하면 못 돌려받잖아요?

의원 : 못 돌려받죠? 그것을 돌려받을 권한 자체가 요인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죠?

MC :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의원 :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왜 이런 일이 있었냐? 라고 제가 갑갑한 마음으로 물어봤더니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업무를 인수인계할 때 그거를 안했다는 거예요

MC : 업무인수인계를 안해서 지금 2007년도부터 5년을 못했다 이런 애김니까?

의원 : 네 그래서 아주 쉬운말로 업무를 뺏구냈다고 하죠? 우리 회사원들 말할 때 업무가 뺏구났으니까 그것이 2007년부터 누적이 되가지고 지금까지 인천시같은 경우는 한건도 환급신청을 안했고, 또 5년간에 한해서만 유효기간이 인정이 돼요 그러면 11월달에 신청을 완료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5년 이후인 2007년 1월부터 10월달까지는 환급받지를 못합니다. 신청을 해도

MC : 아 그래요?

의원 : 네 그래서 금액이 얼마나 되나 총 따져보려고 했는데 인천시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전산을 다 뒤지고 영수증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100억은 안 되고 100억 미만의 액수정도 일 것이다 예측되고

있어요 규모는 11월 돼야 나올 거 같습니다.

MC : 5년 동안 환급하지 못한 거를 시하고 군구를 다 합쳐 보니까 100억 가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다는 말씀 이신가요?

의원 : 인천시 본청 인천시와 공사공단 인천시만 그렇다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MC : 군구를 빼고

의원 : 네 군구같은 경우에는 부평구는 그래도 열심히 작업해서 부평구는 10억을 환수 받은 그런 내역이 있습니다. 중구도 3억 2억3천 5억정도 환급 받은 내역이 있고요 인천에서 중구와 부평구 이외에는 한건도 환수를 신청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에 자기업무에 대한 집중과 업무를 뺄 구 내지 않은 대선 환수 신청을 하고 전혀 모르고 있던 대선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MC : 그러면 이걸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는 건가요?

의원 : 그러니까 5년 동안에 유효기간이 있어요? 환급신청을 한 날짜부터 5년도 거 까지 영수증은 세무서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MC : 만약에 올해 신청을 하면 2007년도 거 까지 다 되는 거 아닌가요? 5년째이니까요?

의원 : 5년이라고 치니까 2007년도 1월부터 10월정도거 까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MC : 아 11월부터 따져야 되는 거로군요?

의원 : 그렇죠?

MC : 이거 정말 속상하네요 돈 없다 재정난 겪고 있다 이런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세 나가고 있는 돌려받을 거 있는 이런 거 당연히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 : 그럼요 지금 만약에 100억이라는 60 70억 이라도 환급받는다 한다면 인천시로서는 아주 큰 짐을 더는 격이구요? 그리고 도의적으로 인천시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자기 돈이 아니라고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것은 인천시로서 굉장히 큰 업무적인 실수입니다.

MC : 근데 지금 말이죠 궁금한 게 중구나 부평구는 환급받은 실적이 있단 말씀요?

의원 : 그거는 공무원이 알아서 잘 챙긴 거죠?

MC : 그 기초자치단체가 그렇게 했으면 본청에서 당연히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원 : 그렇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요?

MC : 그것조차 파악을 못한 거예요? 이렇게 돌려받을 실적이 있다는 것도

의원 : 자기 업무인지를 모르고 있던 거예요? 그것을 세무서에서 좀 알려주면 어땠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세무서 입장에서는 신청을 안 하면 줄 일이 없으니까 세무서에선 좋은 일이니까 그냥 놔두고 있었던 거죠? 속상한 일이지요?

MC : 정말 속상하네요

의원 :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이것을 인천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것을 제가 지적을 했으면 저의 공이고 저의 특종인데요 인천시가 그나마 8월달부터 자기 잘못을 알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부랴 부랴 영수증 검토작업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니깐 밖에 안 알려지게 일을 하려다가 인천시가 저한테 들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 방송에 인터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나마 인천시가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MC : 다행은 무슨 다행입니까? 1월부터 10개월 이상치는 못 받게 된 거 아닙니까?

의원 : 그렇게 됐습니다.

MC : 참 속상한데 그 다른 광역시나 다른 도에서는 이런 걸 잘 환급을 받고 있습니까?

의원 : 그거는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원님이 도정지를 통해서 이 사실을 날카롭게 지적을 해서 경기도도 지금 난리가 났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이 작업을 제대로 안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나 다른 광역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MC : 네 그러면 정확하게 5년전거 까지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1월부터 신청이 들어가는 그때까지 최소한 10개월 이상은 못 받게 됐다 이런 말씀인데 요거는 상황이 이러니까 국세청에 이의신청 이라 던 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의원 : 읍소를 해야죠?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사정을 고백하고 싹싹 빌면서 봐 달라 우리가 실수했다 법적으로는 못 받게 돼있지만 좀 이것을 업무 협조 합시다 협상을 해야죠?

MC : 대충 뭐 따져도 5년 동안 100억 이었으면 최소 20억 가까이 안 되겠습니까?

의원 : 그것이 이제 내역을 봐야 되는데요? 기간별로다 차츰차츰 쌓이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 안에 일어났던 환급에 대한 사건 때문에 결정되는데 매점이나 임대주고 이런 것은 별로 수익이 작고요 부동산을

MC : 그렇죠 그게 크겠어요?

의원 : 그게 큰거죠? 그런 이벤트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주 관건이죠? 그 안에 그거를 제가 요청중입니다. 자료를요

MC : 네 보도자료를 보니까 신규세원 발굴이라는 표현이 있던데 발굴이라는 게 맞습니까? 업무태만 아니었던 겁니까?

의원 : 아 그거는 그래서 제가 밝힐 수 없는 이면인데요?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고 보도를 내겠다 했더니 집행부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제발 그렇게 해주면 안 된다 우리 체면도 좀 생각해 줘야 된다 하면서 시의회에서 그렇게 좀 써서 완곡하게 표현한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시민들로서는 화나시는 일이지요?

MC : 대단히 화납니다. 대단히 화나구요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원 : 그것은 이제 집행부에서 할 일이구요 행정부시장님 이하 인사위원회에서 다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일단 이것을 환수를 한 뿐이라든가 할 수 있게끔 집중할 생각이구요 이게 끝난 다음에서야 책임선에 대해서 제가 물을 생각입니다.

MC : 본인 돈 같았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의원 :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금 공적영역에 대한 비극입니다. 행정에서 있는 자기 세금이나 자기일 같으면 이렇게 처리가 안 되는데 방치 되고 함부로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프게 생각합니다.

MC : 본인 연말정산 할 때는 10원짜리 하나라도 더 돌려 받으려고 애를 썼을텐데 100억 가까운 돈이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다는거

의원 : 그렇습니다. 자기 하나마나한 축제를 할 것이며 지으나 마나한 건물을 올리려고 애 쓸 것인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구요 요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올려서 다른 일이 이런 사안이 있는지 없어야 되는 데요 제가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시민들 알권리를 제가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MC : 의원님 이번에 애를 많이 쓰셨는데 계속해서 감시의 눈을 잘 뜨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의원 : 감사합니다.

MC : 인천의정중계탑이었습니다. 부평제2선거구가 지역구인 이재병 시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